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4-12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4-12
2020-04-12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04-12

1. [아, 안사요]

이제와서 자기네들 좀 다시 사달라는 모양새가 참으로 애처롭다. 이번 보궐 선거에서 완패, 참패한 뒤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뒤늦은 후회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 말이다. 이들이 애처로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자.

첫째, 누구 나이 생각부터 들었을 것이다. 왜 그때가 아니라 지금 와서 이러지? 정말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동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성을 하고 그로 인해 초래된 여러 파장과 사회적 손실을 생각했다면 지금이 아니라 박영선 후보가 출마하겠다고 설치던 그때 이야기를 꺼냈어야 했다. 그때는 차마다 선원의 입김에 그런 말을 꺼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당지도부에 반기라도 들었다는 말인가? 그뵘...

말갈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애처로운 법이다.

둘째, 혹시 초선의원님들, 당의 의견을 받들어 총알받이 몸빵으로 이런 쇼하셨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나마도 희미한 그 존재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 지? 당에 뇌를 맡겨두고 '가라! 피카츄! 몸통 박치기!' 하면 언제든 뛰어드는 분들이 애처롭지 않을 리 없지 않은가. 이렇게 안 하면 다음 번 공천은 없다고 누가 협박이라도 하셨나? 만약 그래서 이런 쇼를 하셨다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원을 할 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애처롭고, 협박받고 자유를 박탈당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시니 더 애처롭고, 참드릴 말씀이 없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말하는 민심은 너무나 명확하다. "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다 개같은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더 짜증나니까 엇 먹어봐라" 이다. 이걸 가지고 또 말잔치 좋아하시는 호사가들이 '20 대 남자가 극우네 ~', '20 대 여자는 TERF 나 짝는 혐오주의자들네 ~' 어찌고들 하고 계시는데, 그냥 아직 선거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울며 겨자 먹기의 상황에서 더 좇 같은 새끼들 짝은 거지, 이걸로 제발 헛소리들 좀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 박노자 선생을 위시한 멍청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다.

이번에는 아직 많은 대중이 선거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선거로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엇 먹이겠다는 선택지 외의 다른 길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나라 키스트 연대역시 이 점에 대해 더 많은 대중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하지 못했으니 엄중한 평가와 반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정치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모든 이를 한데 모아 내기 위해 전진할 것이다.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정치 병자들에게 다 시한부 고한다.

” 아, 안사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766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27308>

2. [언제부터정부가자치의필수조건이었나]

한국의대학들에서, 총학생회가세워지지않고있다고들한다. 그리고 < 연합 뉴스 > 는이것이학생자치가상실되고, 학생들의의견을반영할창구가사라져가고있음을의미한다고한탄한다. 하지만정작기사에서는, “(학생자치에) 관심이 많아서선거불참으로의사를표명하는것”이라거나, “총학생회의필요를느끼지 못”하고있다는학생대중들의의견이표출된다. 대학사회에서의자기삶을꾸려가는데있어, 총학생회라는유사정부가더이상필요하지않다는이야기다. 이것이 왜스스로다스리는것 (자치) 이아닌가.

무엇보다, 언제부터총학생회가자치의기구였는가. 학생자치를표방한것은 맞았을수있는데, 학생대중의“삶”에필요한것중총학생회가결정할수있는것이 무엇이있었는가. 예산결정에개입할도리가없는, 등록금결정조건, 학교생활 의행정적개선이건폐할도리도없다. 행사를주관한다고하지만, 솔직히지금의대 학사회에서무슨행사가학생대중의참여를불러올수있을지모른다. 오죽하면총 학생회가학생자치에필연적인기구라고주장하는기사에서마저도, 대학축제, 를 쓴후다른행사가떠오르지않았는지“등”을바로붙였겠는가. 학생회이름으로정 치하지않았으면좋겠는데, 솔직히정치를하건학생복지를하건아니면뭘하건, 그것에학생대중이참여하지않으면달라지는것은아무것도없다.

결국, 총학생회가실질적으로학생대중의삶에영향을줄수있을만한, 학생자 치를이룰만한힘을가지기위해서는, 총학생회의등록금투쟁이나교내현안해결 을위한투쟁에, 총학생회주관의행사에, 총학생회의사업에학생대중들이직접참 여해야만한다는결론이나온다. 그런데어차피학생대중들이직접참여해야자치 할수있다면, 굳이총학생회라는대리인을둘이유는또무엇인가.

7-80 년대, 민주적총학생회를세우고자하였던학원민주화투쟁은, 군사독재 의치하에서민주적정부를세우고자하는시민적열망과그맥락을같이한다. 학교 가선정한어용대리인이아니라, 학생들의총투표로, 학생들이세워올린학생들의 대리인을선정하고자했던운동이었다. 하지만, 군사정부를끌어내리고그자리에 문민정부를세운것이인민의자유로운삶을, 사회의민주적운영을세워내지못했 던것처럼, 학생의총투표로세워올린민주적총학생회도, 학생들의삶을바꾸지못 했다. 자치를수립하지못했다.

기사가 지적인 것처럼, 대학에서의 학생 자치는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총학생회가 세워지지 않았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1년에 단 1주일, 총학생회 투표일에만 “자치”하고, 그것으로 학생 자치의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믿고 안심해온, 그 환상이 깨어지고, 애초부터 흔들리고 있던 현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에 가깝다.

이제, 학생 자치를 세우자. 학생 총회를 준비하자. 학생 조합을 조직하자. 총학생회 따위의 대변에 기대어 가는 자치가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내고, 자기 요구를 직접 학교에 전달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들을 직접 고민하는, 제대로 된 자치를 세워내자.

” 사라지는 대학가 총학생회... 학생 자치 '흔들'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

3. [조합이 우리를 강하게 하리라]

얼마전, 세계 굴지의 초거대 기업 아마존에서 노동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지난 모든 세월 동안 무노동 경영을 경영 원칙으로 삼았던 아마존에게 있어, 이는 중대한 문제였다. 아마존 노동자들은 겉보기로는 훌륭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회사에 의한 선전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으며, 베시머 사업장을 시작으로 여러 곳에서 노동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벌여왔다.

당연하지만 사측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마존은 노조가 설립된다면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노동 조합은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노동 조합이 결성돼야 사업장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등의 협박을 벌여왔다. 그리고 투표를 감시하려는 시도를 함은 물론 이거니와 투표에 있어 거짓 정보들을 계속해서 흘려왔다. 그들의 의도는 효과를 봤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협박은 노동 조합 설립이 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가면 갈수록 노동 조합에 대한 열망과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미래를 향한 갈망은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번 아마존 노동 조합은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노동 조합 조직에 대한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중은 아마존의 추악한 방해 공작에 대한 성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회의 정치꾼들조차도 이에 편승하여 연일 아마존을 때리는 척이나 마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확고히 알 수 있다. 노동 조합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 노동 조합은 그 존재 자체로, 혹은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만으로 자본가들과 국가 권력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이를 눈앞에서 목격했으며, 이제 다음 차례는 한반도 남쪽의 이 땅이 될 것이다. 조합이 우리를 강하게 하리라.

” 아마존, 노조 설립 무산됐지만... ” 노동법 개정 ” 후폭풍 거세 ”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90539.html